

SFA, 물류자동화 마지막 10% 공략 AI·로봇 앞세워 완전 무인화 도전

아산에 ‘ART 이노베이션 센터’ 개관 휴먼라이크 로봇핸드·자율주행 실증 피킹·상하차까지 자동화 범위 확대 내후년 기술 완성도 95% 이상 목표

SFA가 인공지능(AI)과 로봇을 결합한 물류 자동화 기술을 한곳에서 검증하는 실증센터를 열고 2030년 완전 무인화 구현에 속도를 낸다. 기존 이송·보관·분류를 넘어 사람의 작업이 남아있는 피킹과 상하차까지 자동화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SFA는 30일 충남 아산사업장에서 로봇 기반 자율제조 실증시설인 ‘ART 이노베이션 센터(AI Robotic Technology Innovation Center)’를 개관했다. 센터에서는 휴먼라이크 로봇 핸드와 자율주행 로봇, 듀얼암 모바일 로봇, 로봇 비전, AI 기반 자율제조 소프트웨어 등을 실제 제조·물류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검증한다.

SFA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물류 자동화 기술 수준은 현재 약 90%다. 특정 고객사 한 곳의 자동화율이 아니라 입고·보관·이송·피킹·출하 등 각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 확보 수준을 의미한다.

남은 과제 중 하나는 ‘피킹’이다. 현재



김상경 SFA 대표이사가 30일 충남 아산사업장에서 열린 ART 이노베이션 센터 개관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석션 방식의 피킹 로봇으로 물류센터에서 취급하는 제품의 약 70~80%를 처리할 수 있지만 모양이 불규칙하거나 흡착하기 어려운 제품 등 나머지 20~30%에는 추가 기술이 필요하다.

SFA는 사람의 손처럼 움직이는 로봇 핸드와 비전 기술을 활용해 이 영역까지 자동화할 계획이다. 특히 로봇의 이동 능력보다 산업 현장에서 물건을 정확하게

집어 원하는 위치에 내려놓는 ‘픽앤드플레이스(Pick&Place)’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상하차 자동화도 추진한다. 팔레티이징과 다팔레티이징 기술은 이미 확보했으며 트럭 상차 기술도 개발 마무리 단계다. SFA는 피킹과 상하차 등 남은 기술을 추가해 내후년께 자동화 기술 완성도를 95% 이상으로 높이고 2030년 완전 무인화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실증센터는 고객사가 기술을 직접 확인하는 테스트베드 역할도 맡는다. SFA는 현재 다수 고객사와 로봇 기술의 개념검증(PoC)을 협의하고 있으며 내년 초까지 실제 적용할 고객사와 라인을 선정한다는 목표다.

제조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수작업 비중이 남아 있는 유통 물류 분야에서 로봇 기술이 먼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김상경 SFA 대표는 “SFA의 ART 이노베이션 센터 개관은 SFA가 글로벌 시장에서 AI자율제조로보틱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선도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metroseoul.co.kr

인천 송도 ‘K-바이오랩허브’ 첫 삽

중기부, 연세대 국제캠퍼스서 착공식 중앙·지방정부·학계 공동 프로젝트

바이오 스타트업 혁신 거점 역할을 할 ‘K-바이오랩허브’가 인천 송도에서 첫 삽을 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오후 인천 송도에 있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K-바이오랩허브 착공식을 개최했다.

K-바이오랩허브는 미국 보스턴의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 기관인 ‘랩센트럴(LabCentral)’을 모델로 해 바이오 스타트업 성장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국가대표 바이오 창업 지원 인프라다.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는 공동 추진 프로젝트다. 연세대는 구축부지를 제공해 연구와 산·학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인천시는 건축비를 부담해 바이오 스타트업이 입주할 최첨단 시설을 건립한다.

사업을 총괄하는 중기부는 K-바이오랩허브 사업단 운영을 비롯해 고가의 핵심 연구 장비 구축과 연구개발(R&D) 프로그램 예산 지원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의 기술개발과 성장을 돕는다.

K-바이오랩허브는 이날 착공을 시작으로 2028년 11월에 건물을 완공할 예정

이다. 완공과 동시에 바이오 혁신 스타트업 60개사가 입주한다.

건물 1~2층에는 운영 통제실과 고가의 특수장비구역을 조성하고 3~7층에는 초기기업 지원공간 50개를, 8~9층에는 성장기업 공간 10개를 배치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바이오 기업에게 필요한 17종의 범용성 연구장비 24대를 올해 10월까지 연세대 국제캠퍼스 임시공간에 우선 도입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 완공에 맞춰 총 59종, 134대의 첨단 장비를 구축한다.

K-바이오랩허브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바이오로직스, 연세세브란스 병원 등 인천 송도의 바이오 클러스터(협력지구) 인프라와 연계해 스타트업-대학-앵커기업-병원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9년부터는 입주기업의 단계별 맞춤 지원을 위해 6대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후보물질 발굴부터 전임상·임상·인허가·투자 유치 등 60개사에 41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K-바이오랩허브는 대한민국 바이오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거듭나는 핵심 요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대중기협력재단, ‘상생협력 모펀드’ 조성

KB금융과 첫 상생협력 모펀드 조성 30억 출연·총 50억 규모 투자 추진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이 KB금융그룹이 출연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으로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상생협력 모펀드’를 최초로 결성한다.

30일 대중기협력재단에 따르면 이번에 결성하는 ‘상생협력 모펀드’는 지난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생협력기금이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법제화된 이후 첫 사례다.

그동안 상생협력기금은 주로 협력사 중심으로 지원됐었다. 하지만 이번 KB금융그룹이 출연한 재원은 중기부와 협의해 올해 신설한 ‘공동협력사업’ 일환으로 추진돼 협력 중소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중소기업·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KB금융그룹이 상생협력기금 30억원을 출연하고 협력재단은 이를 ‘상생협력 모펀드’에 출자한다. 모펀드 운용은 한국벤처투자가 수행하게 되며 향후 민간 자원 매칭을 통해 총 50억원 규모로 임팩트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2개 자펀드 결성을 추진한다.

협력재단 관계자는 “이번 상생협력 모펀드 결성을 통해 상생협력기금이 기존 협력관계를 넘어 다양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반이 마련됐다”며 “KB금융그룹의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한 모펀드 조성 사례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재단 내 창업·벤처 전담 조직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하고 향후 회수되는 재원은 재출자하는 방식으로 출자·회수-재출자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중기중앙회, 기계설비업계 기업승계 지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업무협약 차세대 CEO 교육·제도개선 공동 추진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손잡고 중소기업 기업승계를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30일 오후 서울 강남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기계설비건설협회와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기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발굴과 대응에 협력하고 차세대 CEO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설명회 등을 공동 추진한다.

협약식 이후에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기계설비업계 차세대 CEO 대상 기업승

계 지원세제 및 법률 리스크 관리 설명회도 공동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김희중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개선을 이끌어 중소기업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계설비협회 추문갑 경영부회장은 “협약을 계기로 기업승계를 준비하는 회원사들이 관련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컨벤션호텔에서 열린 ‘성장사다리 포럼’에서 (왼쪽 4번째부터)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성원 산자위원장,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 옴부즈만

최승재 옴부즈만, 中企 규제애로 해소 행보

성장사다리 포럼서 제도개선 청취 납품대금·기술보호 등 현안 논의 창업기업 찾아 규제애로 점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산업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규제 애로 해결을 위해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3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최승재 옴부즈만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컨벤션호텔에서 중소벤처·여성, 소상공인 관련 8개 협·단체 대표들과 함께 국민 의힘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초청, 올해 두번째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가 함께 했다.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필요한 변리사 비밀유지권이 담긴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60일→30일) 및 온

라인대형플랫폼의 대금정산기한(20일 이내) 도입 ▲벤처생태계 성장을 위한 벤처펀드 출자 및 모험자본 투자 확대 유인책 마련 ▲팜테크 특화 인허가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내용이 담긴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과거와 달리 전자결제가 보편화된 현실을 고려할 때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30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온라인대형플랫폼이 납품기업에게 20일 이내 대금정산을 하는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도와달라”고 전했다.

최 옴부즈만은 “의뢰인이 비밀유지권 제도를 악용해 분쟁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자료를 은닉하는 경우 등에 대한 충분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납품대금 지급기한은) 기존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온라인 거래 판매대금 지급기한 설정 등을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옴부즈만은 이날 오후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경기 성남에 있는 보스반도체에서 ‘경기동부 창업기업 현장간담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핸디라이프 이상호 대표는 “전기이륜차 배터리 용량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완속·저속 충전으로도 충분히 한데 제약이 많다”면서 “비어있는 저속 전기자동차 시설조차 이용하지 못하니까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희주 온즈온 대표는 “진료·상담 음성 AI 학습에 활용하려면 어떻게 가명처리해야 하는지, 기술적 조치를 하더라도 충분한지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워 답답하다”면서 “음성 변조나 텍스트 변환, 개인식별정보 삭제 등 가명처리 단계별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사례를 제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승호 기자 bada@